

## 불신자의 죄 3

롬 1:28~32

### 죄의 시작

인간의 죄란 하나님을 거부하는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그 위치를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포기입니다. 즉 네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것이요, 나는 더 이상 간섭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어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어 남녀 모두 더러운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다”고 하셨으며 마지막으로 28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21가지 죄들을 짓게”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 버려두신 것이 심판입니다. 저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간의 죄의 본성대로 내어 버려두시는지 아십니까?

2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은 참으로 비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추악하고 참혹한 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가복음 7장 21~22절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에 보면 똑같이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추악한 죄목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죄악들이 거미가 알을 낳듯 줄줄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막아주지 않으면 주체 할 수 없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 죄의 세 가지 그룹

오늘 말씀인 로마서 1장 29~32절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죄악들을 좀 더 자세하게 분류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 (1) 본질적인 영역

첫 번째 죄의 그룹은 인간 자신 안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죄들의 목록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첫째, 모든 불의입니다.

불의란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로서 모든 죄의 총괄입니다. 불의란 이런 의미에서 죄의 운영 체제와 같습니다. 즉 인간은 불의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추악입니다.

추악이란 불의라는 뿌리에서 나오는 악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을 보면 기뻐하고 악이 활개치는 것을 보면 더 좋아합니다. 그 악 때문에 고통 겪는 사람들을 보면 고소해 합니다.

셋째, 탐욕입니다.

악의 결과는 탐욕으로 나타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소유하려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입니다. 탐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넷째, 악의입니다.

이러한 불의와 추악과 탐욕은 악한 생각과 의도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이러한 죄들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치 홍수 때 물이 흘러 넘치는 것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 (2)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악들

두 번째 그룹은 다른 사람을 적극적으로 괴롭히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29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첫째 시기입니다. 시기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시기는 미움을 잉태합니다. 시기에서 각종 모함과 경쟁과 질투가 생겨납니다. 시기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습니다.

둘째는 살인입니다. 시기는 결국 살인하는 데까지 가게 합니다. 살인은 마귀의 전공입니다. 마귀는 사망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죽이고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분쟁입니다. 시기는 살인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 분쟁을 일으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시기, 살인, 분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곳에는 일치와 화해를 가져오는 반면에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과 분쟁이 있습니다.

넷째는 사기입니다. 이것은 마치 낚시 바늘에 미끼를 끼어 고기를 잡듯이 속임수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다섯째는 악독입니다. 이것은 악한 성질의 죄로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악독은 사악한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 (3)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

세 번째 그룹은 저주받은 12가지 인간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언제나 부정적 역할을 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19절 후반부에서 20절을 보십시오.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첫째는 수군수군 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서 남을 악평하고 비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보다는 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내용보다는 나쁜 내용이 많고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비방하는 자입니다. 사람들이 보는데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공격합니다. 헐뜯고 깎아내립니다.

셋째,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입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죄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버림을 받게 된 자를 뜻합니다.

넷째는 능욕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악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을 철저히 괴롭히고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교만한 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자신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을 거부합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섯째는 자랑하는 자입니다. 자랑이란 교만이 언어로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하면 스스로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가 중요하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 됩니다. 능욕하는 자와 교만한 자와 자랑하는 자는 다 같은 개념으로서 자신을 과시하고 빼기는 자를 뜻합니다.

일곱째는 악을 도모하는 자입니다. 스스로 악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악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악은 전염성이 있고 악은 공범자를 찾습니다. 한 가지 악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악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여덟째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배은망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인간의 부모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홉째는 우매한 자입니다.

그는 어리석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시편 14장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상실하면 사람은 우준하게 되어 판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열째는 배약한 자입니다. 약속을 쉽게 깨뜨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열한째는 무정한 자입니다. 감정이 거세된 기계 같은 인간입니다. 특별히 미래시대의 인간이 갖는 특징입니다.

열두째는 무자비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상실한 자입니다. 냉혈동물과 같습니다. 무정한 자와 무자비한 자란 본능적으로 인간의 내면의 감정을 상실한 자입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이런 일들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몰라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다 알면서 짓는 죄들이요 의도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런 죄들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알고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옹호한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죄를 지을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한 죄를 짓는 사람을 옹다하고 옹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얼마나 사악하고 간교한 모습입니까? 이것은 의도적인 반역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제 우리의 결론은 간단하게 나타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든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마음의 찢림과 회개가 없든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오직 해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죄악을 보고 마음의 찢림과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다면 이 모든 정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짓는

스물한 가지 죄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죄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상관이 없게 도와주옵시고

혹시 그런 죄의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런 모든 죄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온누리신문」 제공 - <http://www.onnurinews.com/>